

2년 전 5·18 발굴 포함 안된 이유는

“묘지쪽 포크레인 작업” 증언있었지만 연관증거 못찾아

김양래 전 상임이사 “묘지에 대한 발굴작업 명분 없어”



법무부는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 작업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사살된 시민들이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DNA 검사 등으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해 5·18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사진은 19일 작업 과정에서 수습 중인 유골 모습.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도소에 있는 공동묘지 쪽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것을 봤다”는 수형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과거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2017년 11월6일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과 남쪽 담장 주변에서 5·18암매장의 진실을 찾기 위한 발굴작업이 진행됐다. 광주교도소에는 5·18 당시 ‘교

도소 습격사건’으로 민간인 28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당초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17구의 시신이 암매장됐을 것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2017년 진행된 발굴작업은 1980년 5월 당시 제3공수여단 본부장인 소령이 작성한 기록과 메모, 11대대와 15대대 부대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발굴조사에서 유해나 유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해

11월30일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은 마무리됐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이 발굴작업 전에 묘지를 찾았지만 5·18 당시 암매장과의 연관된 증언을 찾지 못하면서 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에 대한 암매장 발굴 작업만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암매장 발굴작업을 추진한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017년도 당시 교도소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공동묘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전 과정에서 한꺼번에 묻은 부분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이번에 유골이 나온 무연분묘 등 공동묘지가 지 가본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발굴할 만한 유의미한 정보를 갖지 못했고, 이에 발굴작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수형자들이 수형동에서 봤을 때 공동묘지 부근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했다는 증언이 2건 있었다”며 “다만 그 이상의 증언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유골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상임이사는 “40구를 한꺼번에 묻었을 거라곤 생각 못했다”며 “그동안 ‘13구를 묻었다’ ‘9구 묻었다’ ‘앞뒤로 5구씩 묻었다’는 직접 묻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2017년도에 발굴작업을 벌였다”며 “지

금 40구가 나왔다는 건 2차적으로 시신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임이사는 “법무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니깐 (5·18 암매장과의 연관) 기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묻는 것은 허용이 안되고 한꺼번에 묻었다고 해도 관리대장이 있거나 오래됐더라도 묘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DNA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 개장작업을 벌이던 지난 19일 신원미상의 유골 40여구를 발굴했다.

이 유골은 합동분묘 중 한 곳에 있는 콘크리트 합에서 발견됐다. 유골들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유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 군, 의문사조사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이 5월 단체 관계자의 잠깐 하에 40여구의 유골에 대한 육안감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골 2점과 어린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1점을 발견했고, 법무부는 유골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확보한 5·18 행방자 124명의 가족, 299명의 DNA를 확보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공고를 통해 채취한 28명의 가족 37명 중 23명의 DNA도 확보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시민 총 82명을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신봉우 기자

“문제집 베끼고 특정반만 힌트”...광주·전남 일부고교 시험 논란

광주·전남지역 일부 고등학교 시험에서 특정 문제집을 베끼거나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주는 사례가 발생,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생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일부 고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학부모·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 내용을 보면 광주와 한 고

교 교사 A씨는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베껴 출제했다.

제보자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는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고 시민모임 측에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정보를 독점해 좋은 성적을 받았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학생들의 문

제제기로 결국 학교 측은 3명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남에 있는 모 고교에서는 교사 B씨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서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알려줬는데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호 기자

단신

순천시 ‘블랙아이스’ 추경 교통사고...1명 사망

23일 오전 8시32분쯤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A씨(52)가 운전하던 45인승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화물차, 그랜저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며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씨(57·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또 버스 운전사와 버스승객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반대편 차량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와 화물트럭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버스는 벌교에서 승객 14명을 태우고 광주로 가던 중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산단 발전소 유연탄 이송장치 화재

23일 오전 9시32분쯤 여수국가산업 내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6대와 진화·구급 인력 45명을 현장에 보내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은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앞서 급식 납품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

23일 오전 8시42분쯤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한 고등학교 앞 교내 진입도로에서 급식납품차량에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운전 중 차량 보닛 등에서 연기가 나 교내 진입도로로 부근에 차를 세우자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운전석과 조수석을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해 주차된 차 발로 차고 차주인도 폭행한 미군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군산기지 소속 A하사(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하사는 전남 오전 6시20분께 군산시 신북동 한 도로에서 B씨(40)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하사는 이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건너 중 주차에 있던 B씨의 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찼다.

당시 차 안에 있었던 B씨는 A하사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하사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협정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을 부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